

4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4000만원대 일자리 1만개 만들자

市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용역 보고서

연봉은 정규직·비정규직 중간점에서 책정 수평적 노사 관계·원하청 격차 해소 시급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 시책으로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돌입한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인 적절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관계 재설정,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등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또 광주에 4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신설할 경우 1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신규 공장의 성공 경영을 위해서는 노조의 경영 참가를 바탕으로 둔 노사간 파트너십 모델도 제안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 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한국노동연구원(6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 용역비 2억3000만원을 들여 완성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기본 뼈대는 적정 임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최대 5배의 임금 격차를 보이는 양극화된 임금구조의 중간지점을 설정했다.

현대·기아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1억원 수준이며, 사내 하청 5000만원, 1차 협력사 생산직 4800만원, 1차 부품사 사내 하청 3000만원, 2차 부품사 2800

만원, 2차 부품사 사내 하청 22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완성차 공장의 임금 수준은 '4000만원대'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고속권 근로자를 채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이른바 '3고(高) 선순환 임금체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등이 국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고임금, 고속권 근로자의 채용이 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롭게 설립될 이른바 '사회통합기반 혁신공장'은 별도 법인을 통한 위탁 생산공장 방식이 제안됐다. 이 공장의 기본 개념은 적정임금,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경영참가, 학습공장 실현, 자율적 작업팀에 의한 생산 방식, 새로운 노동자유형 정립, 위탁생산 방식, 별도의 법인 설립 등이다.

용역 보고서는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노사간 대등한 수평적 관계 등을 위해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사주중심의 국내 기업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3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통합지원센터와 협업체를 통해 말까지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미 정부와 기업들이 적정 임금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임금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만 확실히 마련된다면 기업의 투자 참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업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3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통합지원센터와 협업체를 통해 말까지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미 정부와 기업들이 적정 임금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임금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만 확실히 마련된다면 기업의 투자 참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3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통합지원센터와 협업체를 통해 말까지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미 정부와 기업들이 적정 임금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임금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만 확실히 마련된다면 기업의 투자 참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3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통합지원센터와 협업체를 통해 말까지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눈부신 햇빛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



김은영 '그림 생각' (122) 뜨거운 여름



에드워드 호퍼 작 '여름'(1943년)

불문학도였지만, 학창시절엔 부조리 문학의 대명사라 불리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속 주인공이 단지 "태양이 뜨겁다"는 이유로 살인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부조리의 의미를 받아들이기에 당시 너무 어려웠거나 지적으로 단순해서였을 것이다. 인간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모순 사이에 놓여있는 부조리를 조금은 알게 된 지금 그 시절이 무색해져 웃음이 나온다.

올해처럼 뜨거운 여름엔 태양 아래 잠시 서있기만 해도 금세 녹아버릴 것만 같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으로 건조해진 정신이 아무 것도 하기 싫게 만드는 무력감도 안겨준다.

20세기 미국인 삶의 단면을 무심하고 무표정한 방식으로 포착해 온 에드워드 호퍼(1882~1967)의 작품 '여름'(1943년 작)에는 짙은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이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빛에 당당하게 맞서는 여인의 모습과 텅 빈 거리, 건물에 새겨진 빛과 그림자, 밝은 빛 속의 우울한 분위기가 묘하게 대조를 이루어 불

안감마저 환기시켜 주는 것 같다. "어쩌면 나는 그다지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다.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집 벽으로 쏟아지는 햇빛이었다." 호퍼가 밝힌 것처럼 화면 속 인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인물의 표정이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뜨거운 햇빛이 그림 속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퍼는 변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딴 시골집에서 아내와 살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발산하는 사람들' '주유소' '자동차 판매기' '뉴욕의 사무실' 등 대표작을 통해 도시민 삶의 한 모퉁이도 했던 고독과 상실감, 소외감 등을 캔버스에 담았다. 자연이나 도시 환경 속에서 부대끼는 현대인들에 대한 화가의 세심한 응시는 후배 화가들과 알프레드 히치콕, 마틴 스코세이지 등 영화감독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朴대통령 '광복 70주년 경축사' 대북·대일 메시지 주목

北, 도발 엄정 대응·대화 노력 日, 아베담화 발표 뒤 수위 조정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내용을 대북·대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14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국제적인 눈과 귀가 쏠리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지뢰도발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다"라



대한 박 대통령 고민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뢰도발 사건이 공식 발표된 지난 10일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정부의 대응을 국방부와 군 당국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1일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베담화의 내용을 봐서 광복절 메시지의 수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대북 메시지에 대한 박 대통령 고민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뢰도발 사건이 공식 발표된 지난 10일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정부의 대응을 국방부와 군 당국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1일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선 "북한이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8·15 대북 메시지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의 경우 14일 아베 담화를 지켜본 뒤 그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아베담화를 평가하고 이를 대일 메시지에 반영할 것이라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과거사 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대일 외교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아베 담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가 대일메시지 관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대일 메시지 모두에서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전남 국제행사 협력지원단 구성

홍보·관람·관광·교통 등 지원

광주시가 전남의 국제행사 지원을 통해 '상생'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전남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지원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단은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홍보지원반, 관람지원반, 관광·공연지원반, 교통지원반 등 4개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1차 지원대상 국제행사는 오는 9~10월 열리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2015국제농업박람회로 행사별 분야별 전담지원반이 협력한다.

지원단은 전남도에서 협조 요청한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시·읍의

전광판·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를 활용한 박람회 홍보와 시 공무원 입장권 예매 등 관람 협조에 나선다. 또 시립예술단의 문화공연, 송정역과 박람회장 간 교통편의 등도 분야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를 광주·전남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치른 것처럼 앞으로 열리는 광주·전남 주요 행사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U대회 지원,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남도학속 건립,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 시·도 상생을 위한 협력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레이저 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